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3



Contents

※ 2025.08.21.(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8.14.~2025.08.2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연과 탄소중립 정책의 혼선(2025.08.14) 1
- 대구시, 제1회 청소년 탄소중립 토론대회 개최(2025.08.14) 1
- 구례군, 기후위기 극복 위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5.08.14) 2
- 인천 덕적도, '쓰레기 없는 섬' 선포로 탄소중립 실천(2025.08.14) 2
- 원주시, 시민 대상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 아카데미 개최(2025.08.14) 3
- 여주시 환경과, 광복절 경축식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2025.08.15) 3
- 춘천시,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2025.08.17) 4
- 인천, 전기차 수요 증가 속 보조금 예산 감소 문제(2025.08.17) 4
- 울산시, 국립탄소중립과학관 연계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 추진(2025.08.18) 5
- 창원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위한 '인증샷 챌린지' 진행(2025.08.18) 6
- 부산 만덕2동, 어린이 주민자치회 대상 탄소중립 교육 실시(2025.08.18) 6
- 포항시,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제2의 포항 신화' 준비(2025.08.18) 7
- 과천시, '과천형 GREEN 기업' 6곳 추가 인증으로 ESG 확산(2025.08.19) 7
-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2025.08.19) 8
- 충남도, 7개 대학과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 협약(2025.08.19) 8
- 하동군, '깨끗한 하동 만들기' 원년 선포 및 자원순환 정책 집중(2025.08.19) 9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호서대와 피지컬 AI 기술 활용 방안 모색(2025.08.20) 9

■ AI 분야 10

- 이재명 정부, AI·에너지 중심 신산업 육성으로 '진짜 성장' 추진(2025.08.14) 10

-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폐지 및 AI 정부 추진 계획 발표(2025.08.14) 10

-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AI 교육 강화 등 교육 청사진 제시(2025.08.14) 11

- 새 정부 국정과제, AI·에너지 등 미래 산업 집중...기존 제조업 지원은 미흡 지적
(2025.08.14) 11

- 안동시, AI 시대 인간의 길 모색하는 인문교양강연 개최(2025.08.14) 12

- 전북 청소년들, SW·AI 챌린지 대회에서 메타버스 올림픽 도시 설계(2025.08.14) 12

- 광주시, 정부 국정과제 발맞춰 AI 산업 육성 가속화(2025.08.14) 13

- 대전 AI 돌봄로봇 '꿈돌이', 70대 여성 위기 상황 감지해 구조(2025.08.14) 13

- 정읍시, AI 기반 모돈 체형 영상진단 시범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2025.08.14) 14

- 인천시, AI와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튜텐시티 도약 추진(2025.08.14) 14

- 새 정부, AI·에너지 전환 국정과제 채택...광주·전남 미래산업 탄력 기대(2025.08.14) 15

- 수원시,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정과제 연계 핵심사업 추진(2025.08.14) 15

- 경기도의회,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디지털 의정 구현 선포(2025.08.14) 16

- 대구시, TK신공항·AI로봇 수도 등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에 총력(2025.08.14) 16

- 전북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AI·공공의대 등 핵심 현안 대거 반영
(2025.08.14) 17

-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모험자본 확대 및 AI·디지털 자산 지원 강조(2025.08.14) 1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8

■ 탄소중립 분야 18

- 한국중부발전, 주한 라오스 대사와 ESG 및 탄소중립 협력 논의(2025.08.14) 18
- 솔라테크-마루베니, 국가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 위한 MOU 체결(2025.08.15) 18
- 탄소중립연구원, 전과정평가(LCA) 시장 선점 목표(2025.08.17) 19
- 가스공사, 호텔과 협력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2025.08.19) 19
- KAI, 'K-휴머노이드 연합' 합류로 항공 제조 로봇 개발 박차(2025.08.14) 20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해양 AI 전담팀 및 전략위 출범으로 '해양수도 부산' 본격화
(2025.08.14) 20

■ AI 분야 21

- 신용보증기금,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2025.08.14) 21
- 대한상의, "해외 인재 100만 명 유치 시 GDP 6% 성장 효과"(2025.08.14) 22
-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대상 '관광AI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25.08.14) 22
- 해양교통안전공단, 'AX혁신추진단' 출범으로 AI 기반 안전관리 강화(2025.08.14) 2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23

■ 탄소중립 분야 23

- 금호타이어, SBTi로부터 2045년 탄소중립 목표 승인(2025.08.14) 23
- 광주신세계, '에너지의 날' 맞아 임직원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2025.08.17) 24
- 에브리봇,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매출 발생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25.08.14) 25
- 글루와 오테림 대표, 'AI & Web3' 행사서 스테이블코인과 AI 융합 사례 발표
(2025.08.14) 25
- IQ AI, 니어 프로토콜과 기술 협력으로 체인 간 AI 에이전트 거래 상용화(2025.08.14) · 25

- 에스오에스랩 대표, "라이다는 피지컬AI의 결정체, 로봇의 눈 역할 할 것"(2025.08.14) · 26
- 엑스페릭스 그룹, AI 헬스케어와 K-뷰티 투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확장 가속화 (2025.08.14) 26
- LG전자, 美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릴리프AI' 공식 출범(2025.08.14) 27
- 충남도-지역대학,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으로 다회용기 사용 확산(2025.08.19) .. 28
- SKT, AI 기술로 독립운동가 모습 복원(2025.08.14) 28
- 국제신문, '기후 동행이 경제다' 주제로 에너지대전환포럼 개최(2025.08.18) 29
- 현행 탄소중립 기술, 인권·환경 문제로 전략 수정 필요성 제기(2025.08.19) 29
- 태권도진흥재단, '인공지능(AI) 사업 추진단' 발족으로 태권도 세계화 추진(2025.08.14) 30

■ AI 분야 30

- HDC현대산업개발, 송파한양2차에 AI·DX 기술로 스마트 랜드마크 조성(2025.08.14) 30
- 춘천 소재 기업 디큐, AI 제품으로 GS인증 1등급 획득(2025.08.14) 31
- 강태영 농협은행장, '에이전틱 AI banking' 전략으로 기업금융 혁신 추진(2025.08.14) 31
- 가온아이, 클라우드 전문가 김주성 CSO 선임으로 클라우드·AI 사업 강화(2025.08.14) · 32
- 어니스트AI, KT와 손잡고 금융 특화 AI로 엔터프라이즈 AX 시장 공략(2025.08.14) 33
- 퓨리오사AI, 베트남 CMC 코리아와 전략적 MOU 체결로 글로벌 시장 공략(2025.08.14)33
- 네이버, "눈과 귀를 가진 '모두의 AI'로 소버린 AI 실현할 것"(2025.08.14) 34
- 크라우드웍스, 234억 원 유상증자 성공...AI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 추진 (2025.08.14) 34
- AI 혁명 시대, 컴퓨터 전공자들의 취업난 심화(2025.08.14) 35
- 강원일보, AI 기술로 일제감시카드 속 독립운동가 미소 복원(2025.08.15) 35

- AI 시대, 대학 학위의 권위 하락과 실리콘밸리의 '중퇴자 신화'(2025.08.17) 36
- 미·중 AI 칩 전쟁 격화, 엔비디아의 딜레마(2025.08.14) 36
- 오픈AI, 빅테크 인재 쟁탈전 속 거액 보너스로 핵심 인력 유출 방지(2025.08.14) 37
- 일론 머스크-오픈AI 소송전, 내년 3월 본재판 예정(2025.08.14) 37
- 텐센트, AI 기반 광고 사업 호조로 2분기 시장 전망 상회 실적 달성(2025.08.14) 38
- 'AI 대부' 제프리 힌턴, "AI에 모성 본능 심어야 인류 멸망 막아"(2025.08.14) 38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연과 탄소중립 정책의 혼선(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제외되어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기후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부족한 “맹탕“ 국정과제라고 비판하며,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임명으로 기대감이 있었으나,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이 최종 발표에서 누락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국정기획위원회는 환경부로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을 이관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주무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하반기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보류됨에 따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핵심 기후 공약들은 산업부 소관으로 편성됨. 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경제 및 산업 논리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또한 전체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과제가 8개에 불과하고, 그 내용마저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옴
지자체	<p>☐ 대구시, 제1회 청소년 탄소중립 토론회 개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와 대구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중등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탄소중립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함. 이 대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됨.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총 18개 팀이 참가한 사전 예선을 거쳐 성지중, 서재중, 정화중 등 최종 8개 팀이 본선 진출 자격을 얻음. 본선 진출팀들은 대회를 앞두고 토론 방식과 절차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며 실전 역량을 강화함. 본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제한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솔버톤 (Solvathon)'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순발력과 논리력을 시험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각 팀이 탄소중립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상대 팀과 치열한 토론을 펼치게 됨. 대회 종료 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과 개인 MVP 8명을 시상할 계획임. 대구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힘
	<p>□ 구례군, 기후위기 극복 위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구례군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함.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내달 19일부터 사흘간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임. 흙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박람회는 개막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제관, 기업관, 판매·홍보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주제관에서는 흙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업관에서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선보일 예정임. 이외에도 약선셰프의 텃밭, 글로벌 시민 토크쇼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임 - 김순호 구례군수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가 피해를 언급하며, 탄소중립 흙 살리기가 기후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수미 부군수와 공직자들이 광주 송정역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번 행사가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p>□ 인천 덕적도, '쓰레기 없는 섬' 선포로 탄소중립 실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유명 섬 관광지인 덕적도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시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섬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최근 방문객 급증으로 심각해진 생활폐기물 및 관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임 -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분리배출 강화, 그리고 관광객이 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신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활동임. 이를 위해 숙박업소에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물을 부착하고, 방문객에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대나무 칫솔 같은 친환경 물품을 배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덕적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탄소 중립 기후시민공동체'를 구성하고, 해양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확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임. 궁극적으로는 '2026 탄소중립 섬 RE100 실천 마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넘어, 덕적도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환임
	<p>□ 원주시, 시민 대상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 아카데미 개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원주시 탄소중립 아카데미-원주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을 개최함. 강연은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상지대학교 민주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전화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함 - 이번 릴레이 강연은 '기후위기, 나의 하루를 바꾸다'라는 주제 아래 기후과학자, 연구자,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함. 강사들은 기후위기의 과학적 원인과 구조,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 그리고 현명한 소비와 생활 습관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임.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임 - 강연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루틴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실천 활동을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원주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p>□ 여주시 환경과, 광복절 경축식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2025.08.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주시 환경과가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열린 여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탄탄여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음. 뜻깊은 국경일에 맞춰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독립유공자 유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을 포함한 수백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부스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환경 시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함. 또한, 친환경 나무 칫솔과 홍보 부채를 나눠주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탄소중립 포인트제 서면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 -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은 다양한 기후 행동 참여 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임. 여주시는 정부의 여름철 오존 저감 정책에 발맞춰 대중교통 이용, 스프레이 사용 자제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며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p>□ 춘천시,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2025.0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열 보강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됨 - 이번 사업 대상지로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조양1리 등 다수의 경로당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사전 공모와 컨설팅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됨. 총사업비 36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건축물들은 하반기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임. 시는 2021년부터 이미 30곳의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춘천시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시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건축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힘
	<p>□ 인천, 전기차 수요 증가 속 보조금 예산 감소 문제(2025.0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인천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인천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22년 1,214억 원에서 올해 412억 원으로 3년 만에 6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적인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캐즘)과 화재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하는 등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 특히 신차 출시 효과와 중저가 모델의 등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것이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인천에서는 전기 화물차의 인기가 높아 시가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함 - 인천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 전기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 보급률은 3.9%로 아직 미미한 수준임. 최근 휴가철 차량 통행량 감소가 대기질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p>□ 울산시, 국립탄소중립과학관 연계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 추진(2025.0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가 국립탄소중립과학관 인근 부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교육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시는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디자인개발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학습 및 놀이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총 공사비는 약 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이번 사업은 단순한 놀이시설 조성을 넘어,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살린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임. 특히 국립탄소중립과학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과학체험 요소를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임. 울산의 대표적인 가족친화형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전체 공간은 특화된 환경디자인을 바탕으로 메인 놀이시설, 휴게 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에너지 절감 방안까지 고려하여 설계될 것임. 시는 이 공간이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며, 아이들의 창의성 증진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 및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위한 '인증샷 챌린지' 진행(2025.0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창원시가 '에너지의 날(22일)'을 맞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중립 여름나기 에너지 절약 인증샷 챌린지'를 진행함.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 시는 여름철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7가지 실천 방법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적정 냉방온도 26℃ 유지,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쿨맵시 착용 등을 제시함. 챌린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임 - 최종옥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시원한 여름을 만들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된다고 강조함.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p>□ 부산 만덕2동, 어린이 주민자치회 대상 탄소중립 교육 실시(2025.0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동네 초록지킴이-내가 먼저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한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함. 초등학생 22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주민자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배우고, 분리수거와 전기 절약 등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법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짐 -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천연재료를 이용한 북극곰 비누 만들기, 바다유리를 활용한 그림톡 만들기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 활동도 포함됨. 이러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됨. 참가 학생들은 앞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보임 - 신용우 주민자치위원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활동에 힘을 보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함.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탄소중립 실천의 주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포항시,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제2의 포항 신화' 준비(2025.0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도시 포항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최근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환경,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탄소 기반 제철 공정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포항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예타 통과로 2030년까지 총 8,1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포항제철소 부지에 연간 30만 톤 규모의 데모플랜트가 건설될 예정임. 포스코는 2028년 실증설비 가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이 사업은 포항을 국내 탄소중립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제로 기반 녹색철강 중심지'로 부상시킬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 포항시는 포스코의 로드맵에 맞춰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여 제철소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복합 터미널과 배관망을 구축하여 산업 전반으로 공급망을 확장할 계획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은 기술 개발 및 시공 과정에서 수많은 고급 인력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임
	<p>□ 과천시, '과천형 GREEN 기업' 6곳 추가 인증으로 ESG 확산(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과천시가 민간 부문의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과천형 GREEN 기업' 6곳을 추가로 인증함. 이번에 신규 인증된 기업은 가비아, 가비아CNS, 에스피소프트 등으로, 시청에서 인증서 전달식을 가짐. 이 제도는 사내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친환경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과천형 GREEN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ESG 실천 사례 홍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추천, 각종 포상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 과천시는 또한 분기별 간담회와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지난 7월 1차로 5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함.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안동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 시는 작년 대비 평가 등급이 상향되어 총 2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요금 절감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꾀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의 주택 289개소와 건물 42개소 등에 총 36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임. 안동시는 이미 2024년과 2025년 공모사업을 통해 64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여 연간 3,435M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연간 2,408MWh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됨 - 이석동 지역경제과장은 2030년까지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자체	<p>□ 충남도, 7개 대학과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 협약(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가 도내 7개 대학과 손잡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에 나섬. 도는 2045 탄소중립 실현과 일회용품 감축을 목표로 국립공주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협약의 핵심 내용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보증금 기반의 다회용기 순환체계(대여-사용-회수-세척)를 구축하는 것임. 충남도는 이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 대학은 실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ESG 경영에 노력하기로 함. 7개 대학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약 70만 개의 일회용컵 감축과 30톤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예상됨 -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학생 35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캠퍼스 내 캠페인, SNS 콘텐츠 제작 등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도록 함. 충남도는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시군 및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시켜 전국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하동군, '깨끗한 하동 만들기' 원년 선포 및 자원순환 정책 집중(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하동군이 2025년을 '깨끗한 하동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도시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돕는 '재활용도움센터' 2곳을 9월에 개소하고, 상주 도우미를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재활용 문화 정착을 꾀할 방침임. 또한 마을 맞춤형 쓰레기 집하장 설치와 불법투기 감시 활동도 병행함 - 농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철에 맞춰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500톤을 수거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새마을지회와 함께 영농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열어 큰 성과를 거둠. 또한, 5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선별품 보관시설을 현대화하고, 선별율을 65%까지 높이는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음 - 하동군은 생태정원 '하동나림공원'을 조성하여 연간 1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녹지 공간을 확보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보전계획과 기후적응계획 수립도 추진 중임. 군 관계자는 깨끗한 하동 만들기는 군민 개개인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더 맑고 푸른 하동을 만들자고 강조함
	<p>□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호서대와 피지컬 AI 기술 활용 방안 모색(2025.08.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함. 이번 워크숍은 호서대학교 지능로봇학과 학생들이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탄소중립 실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론과 실재를 접목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김미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호서대 및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은 로봇 산업과 자동화 설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피지컬 AI 기술이 탄소중립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함. 참석자들은 발표를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 김미영 위원장은 피지컬 AI 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혁신 기술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깊이 있는 연구 발표에 감사를 표함. 또한,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산학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이재명 정부, AI·에너지 중심 신산업 육성으로 '진짜 성장'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성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3+1 진짜성장 전략'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 - 기술 선도 성장의 핵심 분야로 AI가 강조되었으며, 사회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하여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를 위해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구축하는 'AI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확립할 계획임. '국가AI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할 예정임 - AI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됨.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임. 정부는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 에너지(ABCDE)를 5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p>☐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국 폐지 및 AI 정부 추진 계획 발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윤 장관은 경찰국이 과거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행안부와 경찰에 그대로 이식하려 한 제도로,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함. 경찰의 수사권과 중립성은 존중하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자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문민 통제는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 윤 장관은 행안부의 역할이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자치, 세제 등 지방 관련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처임을 역설함. 경제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국정 논의에서 행안부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으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행안부가 맡는다”는 농담을 인용하며 부처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재치있게 표현함 - 디지털 정부 전환과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냄.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를 선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전환 역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침.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AI 교육 강화 등 교육 청사진 제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 정책 청사진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공개됨.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함.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됨 -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초·중·고교에서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성인 AI 교육 확대 등 전 세대에 걸친 AI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임. 이는 윤석열 정부의 AIDT 정책과는 별개로,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 이 외에도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이 포함됨. 또한,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힘
	<p>□ 새 정부 국정과제, AI·에너지 등 미래 산업 집중...기존 제조업 지원은 미흡 지적(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하면서, 당장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정과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벤처투자 확대, RE100 달성 등을 전면내 내세웠으나,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은 보이지 않음 -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대책 역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라고 지적함.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2위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의 공세로 인해 반도체부터 석유화학, 철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일부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고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임. 철강과 2차전지 산업 역시 중국산 공세와 미국의 관세 장벽 등으로 고전하고 있음. 정부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안동시, AI 시대 인간의 길 모색하는 인문교양강연 개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AI 시대 인간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8월부터 11월 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인문교양강연을 개최함.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인간의 본질과 역할을 성찰하고, 철학적 통찰을 통해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됨. 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해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강연은 동서양 철학 전문가인 윤홍식 홍익학당 대표가 진행하며, '양심'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대중과 소통할 예정임. 첫 강연은 8월 30일에 시작되며, 단순한 강의를 넘어 소통형 강연과 선비의 심성 수양법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임. 이를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인문학적 경험을 선사할 것임 - 강연은 회당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음. 참가자에게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무료 관람 혜택이 주어지며, KTX 안동역과 강연장을 잇는 전세버스도 운영하여 접근 편의성을 높임. 안동시는 이번 강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AI 시대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p>□ 전북 청소년들, SW·AI 챌린지 대회에서 메타버스 올림픽 도시 설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등이 주최한 '2025년 제3회 SW·AI Challenge 대회'에서 도내 청소년들이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올림픽 도시를 설계하며 디지털 역량을 뽐냄. 초·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주제로, 경기장부터 교통 시스템까지 도시 전반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과제를 수행함 - 참가자들은 전북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작품에 반영하여 SW·AI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까지 선보임. 심사위원단은 참가팀들의 높은 기획력과 기술 구현 수준, 그리고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높이 평가하며 미래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밝힘 - 대회 최고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은 군산 동고등학교 Aethermind팀 등 3개 팀에게 돌아갔으며, 총 18개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됨.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북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SW미래채움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광주시, 정부 국정과제 발맞춰 AI 산업 육성 가속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 관련 사업들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미 'AI 국가 시범도시'가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 - 특히 국정과제 중 '미래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은 광주시가 제안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됨. 시는 관련 사전 기획용역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는 지역 산업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 강기정 시장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광주 원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광주미래전략실'로 개편하여 민간 워킹그룹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정치, 전문가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계획함
	<p>□ 대전 AI 돌봄로봇 '꿈돌이', 70대 여성 위기 상황 감지해 구조(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의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가 새벽 시간에 7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 위기 신호를 포착하여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A씨가 돌봄로봇과의 대화 중 "죽고 싶다", "살려줘" 등 위험 발언을 반복하자, 로봇에 탑재된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전송함. 첨단 기술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임 - 경보를 접수한 관제센터는 신속하게 경찰에 위치 정보와 상황을 전달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무사히 발견함. A씨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으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입원 조치됨. 평소 돌봄로봇과 정서적으로 교감해왔던 A씨의 사례는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대전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총 1,000대의 AI 돌봄로봇을 운영하며 독거 및 건강 취약 노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 로봇은 말벗 기능 외에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대전시는 앞으로도 더 정밀하고 사람 중심적인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정읍시, AI 기반 모돈 체형 영상진단 시범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모돈 체형 영상진단 기반 정밀 영양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 사업은 3D 스캐너를 이용해 모돈의 등 지방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측정하고,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체별 맞춤형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임 - 이 기술을 통해 사료 낭비를 줄이고 모돈의 비만이나 영양 부족과 같은 생산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임신돈 정밀 사료급이기를 도입하여 개체별 영양 상태에 따라 사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번식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증 농가에서는 이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 - 타 농장의 적용 사례 분석 결과, 농가 소득 증가, 사육 비용 절감, 연간 이유 두 수 증가 등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었음. 정읍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하며, 향후 정밀 축산 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축산업의 현대화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p>□ 인천시, AI와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특텐시티 도약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AI 혁신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특텐시티'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정부 국정과제를 인천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임. 특히 퍼지컬 AI와 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임 - 글로벌 바이오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고,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 맞춰 양자·바이오융합 클러스터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함.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임을 강조함 -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함. 재정분권 확대, 예타제도 개편 등을 통해 SOC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임.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새 정부, AI·에너지 전환 국정과제 채택·광주·전남 미래산업 탄력 기대(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이 핵심 경제발전 전략으로 포함되면서, 이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해 온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새 정부가 AI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AI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 중인 광주의 미래 산업이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남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게 됨 -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의 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로 한숨을 돌리게 됨. 다만, 국정과제는 추진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지자체	<p>□ 수원시,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정과제 연계 핵심사업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수원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국정과제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 및 실천 핵심사업을 마련하여 발표함. 시는 AI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역특화 지정, 도시재생 혁신 지구 공모, 지방하천 수변복합공간 조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이는 정부의 '의료AI 강국 실현', '쾌적한 환경 구현'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들임 -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실천 사업으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AI스마트정책국 신설 및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 출산 지원금 및 무상교통 등 시민 체감형 생활비 절감 정책 등이 포함됨. 이는 '소멸 위기 지역 지원 강화', '세계 1위 AI정부 실현',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등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임 - 수원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현안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왔음.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시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기도의회,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디지털 의정 구현 선포(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의정 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민생중심의 디지털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함. 김진경 의장은 AI가 사회 전반을 재정의하는 시대적 변화에 지방의회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혁신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개방적인 새로운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힘 -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2028년까지 AI 기반의 스마트 의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됨. 이 계획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중심의 AI 비서 서비스, 의정 현안 분석 지원, 통합 의정포털, 원격회의 및 전자결의 환경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는 'AI로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냄.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선도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됨
	<p>□ 대구시, TK신공항·AI로봇 수도 등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에 총력(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구시의 핵심 현안들이 지역공약으로 다수 포함됨에 따라, 시가 이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약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대구의 7대 공약에는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해묵은 과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대구의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함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정위와 국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지역공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밝힘. 앞으로 경상북도와 광역협력 TF를 구성하여 신산업 기반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핵심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북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AI·공공의대 등 핵심 현안 대거 반영 (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 첨단전략산업, 공공의대 신설 등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이 다수 포함되어, 향후 5년간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전북도는 정부 국정과제가 지역의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방향성을 같이한다고 분석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과제에 포함되어 전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전라선 고속화 철도 등 SOC 확충 사업이 반영되어 지역의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 '튼튼한 사회' 분야 과제에는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이 포함되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전북도는 국정과제가 하나의 큰 방향인 만큼, 해당 과제 실현에 전북의 사업이 핵심임을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정치권과 협력하여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힘
	<p>□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모험자본 확대 및 AI·디지털 자산 지원 강조(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에서 금융 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고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그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펀드 도입과 함께, 금융권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계량화하는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또한, 금융 분야에서도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함 -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서는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신속한 해소, 금융안정 수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특히 추가조작 등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중부발전, 주한 라오스 대사와 ESG 및 탄소중립 협력 논의(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중부발전이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을 충남 보령으로 초청하여 ESG 경영 및 해외 탄소중립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방문은 이용우 중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글로벌 에너지 사업과 ESG 경영 지원을 목표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됨. 송간 루앙무닌턴 대사는 신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초고효율 친환경 발전설비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짐 - 중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해외 에너지 사업, 동반성장, ESG 및 탄소중립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양측은 한국의 에너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부발전과 라오스 간의 탄소중립 및 신규 사업 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눔. 향후 글로벌 ESG 경영을 함께 확산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예고함 - 송간 루앙무닌턴 대사는 중부발전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함. 또한, 이번 교류가 향후 글로벌 탄소감축 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양측은 기념 촬영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p>□ 솔라테크-마루베니, 국가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 위한 MOU 체결(2025.08.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솔라테크와 글로벌 종합상사 마루베니 주식회사가 에너지 솔루션 컨설팅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을 밝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그린필드 개발 지원, 관련 정책 및 정보의 신속한 공유, 그리고 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 자문 부문에서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임. 양사는 에너지 솔루션 컨설팅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RE100, 탄소중립, 전력 전환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테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분산형 전원 기반의 리스형 IPP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이며, 마루베니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전개해 온 글로벌 종합상사임.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두 기업의 기술적, 사업적 협업이 향후 사업 영역 확대와 구체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p>□ 탄소중립연구원, 전과정평가(LCA) 시장 선점 목표(2025.0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연구원이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기반 탄소회계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LCA는 원재료 채굴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기법으로, EU의 CBAM, DPP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탄소 감축 요구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탄소중립연구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함 - 주력 제품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LynC'는 기업 실무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국제 표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고비용 컨설팅 의존도를 크게 낮춤. 이민 대표는 기술력을 통한 사용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핵심 차별점으로 꼽으며,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비전문가용 솔루션 '탄소허브' 출시로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유한킴벌리, GS칼텍스 등 다수 기업이 탄소중립연구원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실증 성과를 내고 있음. 이민 대표는 LCA 시장이 과거 ERP 시스템처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며, 향후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할 계획임을 밝힘. UNECE 자동차 LCA 표준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국제 표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p>□ 가스공사, 호텔과 협력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 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가스공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EERS)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의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짐. 양사는 이를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공식적인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으로 등록하는 데 합의함 -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의 총괄 주체로서 외부감축사업 등록과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사업 등록 및 모니터링,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력할 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확임. 이를 통해 양사는 향후 10년간 약 1,000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이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정식 등록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양사 모두 배출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가스공사 관계자는 고효율 설비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연계하는 이번 사업이 기업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p>□ KAI, 'K-휴머노이드 연합' 합류로 항공 제조 로봇 개발 박차(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공식적으로 합류함. KAI는 이번 참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생산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핵심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이는 항공기 제조 공정의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임 - 항공기 제조는 정밀한 수작업에 의존하는 공정이 많았으나, KAI는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절단, 드릴링, 밀폐 처리 등 정밀 작업과 부품 운반, 최종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휴머노이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KAI는 이미 사천 본사에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 전 과정에 스마트 로봇 시설을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KAI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스마트 제조 경험과 디지털 기반 생산 혁신 역량이 휴머노이드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 항공 제조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융합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지방기관	<p>□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해양 AI 전담팀 및 전략위 출범으로 '해양수도 부산' 본격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AI 기술로 실현하기 위해 해양 AI 테스크포스(TF)단과 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해양산업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섬. 진흥원은 그동안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해운, 항만, 물류 등 부산의 핵심 산업인 해양 분야에 접목하여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 AI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AI TF단은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실증 및 대형 국비 프로젝트 기획, 산업 데이터 기반 인프라 고도화, 전문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함. 또한, 해양산업 및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전략과 핵심 정책 과제를 마련하며, 특히 AI 기반 항만·물류 최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임 - 김태열 원장은 부산이 가진 해양산업 역량에 AI를 결합하면 진정한 글로벌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함. 진흥원의 모든 디지털 전환 역량과 기술 기반을 총동원하여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 이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해양 스타트업 육성 협의체 구성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신용보증기금,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에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에서 있다는 인식 아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함.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 목표는 5조 3,000억 원으로 설정됨 - 신보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원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전담할 'AI추진단'을 신설함.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조직 내부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임. 또한, P-CBO 직접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본시장기획관'과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을 신설하여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최 이사장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고객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보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함. 특히 창업, 수출, 첨단산업 분야 등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대한상의, "해외 인재 100만 명 유치 시 GDP 6% 성장 효과"(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구 절벽과 AI 시대 고급 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인재 100만 명을 국내에 유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145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국내총생산(GDP)이 6.0%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이는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인재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 충남 등 GRDP가 높은 지역이나 외국인 비율이 낮은 대구, 부산 등에서 추가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의 유입은 소비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급 인력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두뇌 유출' 국가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조성, 해외 첨단산업 공장(팩)의 통째 유치, 해외에서 국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 후 도입하는 '선 육성, 후 도입' 전략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AI 시대의 글로벌 인재 영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p>□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대상 '관광AI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관광AI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함.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됨. 접수는 오는 9월 5일까지 진행됨 - 공모 분야는 축제나 공연 등 단기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형'과 관광지 등 상시 운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서비스형'으로 나뉘며, 중복 참여도 가능함. AI 기술과 관광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학과 학생들이 융합팀을 구성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어 학제 간 협력을 장려함 -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0팀을 선발하며, 대상 팀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됨. 공사는 수상작에 대해 워크숍 참여와 현장 실증 모니터링 등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해양교통안전공단, 'AX혁신추진단' 출범으로 AI 기반 안전관리 강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해양교통안전 행정과 기술 연구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AX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킴. AX(AI Transformation)는 AI 기술을 활용해 조직, 업무,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 기조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 - 추진단은 경영전략, 해양교통, 선박검사,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과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함. 특히 국내 최초로 AI를 도입한 해상교통량 예측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해양 사고 가능성까지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임. 또한, 연안여객선의 결항·지연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도 구현할 예정임 - 선박검사 분야에서는 AI 챗봇 '해수호봇'의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선체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고위험 선박을 사전에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김준석 이사장은 AI가 해양안전 분야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금호타이어, SBTi로부터 2045년 탄소중립 목표 승인(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타이어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45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목표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음. SBTi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의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글로벌 연합기구로, 이번 승인은 금호타이어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정을 의미함. 이를 통해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타이어는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42% 감축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25% 줄이는 단기 목표를 설정함.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감축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감축 활동을 추진함 -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탄소에너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 세계 7개 생산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전력 사용량의 11%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으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추가적인 조달 방안도 검토 중임. 이러한 노력은 CDP 기후변화 평가 B등급 획득과 공급망 관리 평가 최고등급 선정으로 이어지며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음
	<p>□ 광주신세계, '에너지의 날' 맞아 임직원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2025.0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광주신세계가 에너지의 날(22일)을 기념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함. 이번 캠페인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비율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광주신세계는 평소에도 점심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 실내 적정온도(26도) 유지, 대기전력 차단용 멀티탭 사용, 계단 이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과거 '탄소업수다 챌린지'에 이어 이번에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미사용 플러그 뽑기, 빨래 자연 건조 등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임직원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새로운 챌린지도 진행함. 광주신세계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 광주천변 플로깅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힘
	<p>□ 에브리봇,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매출 발생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서비스로봇 전문기업 에브리봇이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하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흑자 전환에 성공함. 매출액 또한 직전 분기 대비 109% 증가한 81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주력 사업인 로봇청소기 매출의 회복과 신사업인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덕분으로 분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에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로봇청소기 매출은 AI 올인원 로봇청소기 Q9과 침구 로봇청소기 X1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예년 수준을 회복함. 여기에 더해, SK인텔릭스가 출시 예정인 AI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에 탑재될 AI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됨 - '나무엑스'가 9월에 정식 출시되고 관련 모듈 양산이 본격화되면 에브리봇의 3분기 매출은 2분기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회사는 기존 로봇청소기 사업에서도 영업조직을 재정비하고 하반기 다수의 신모델 출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p>□ 글루와 오테립 대표, 'AI & Web3' 행사서 스테이블코인과 AI 융합 사례 발표(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밸리 기반 K-블록체인 기업 글루와의 오테립 대표가 구글 클라우드가 공동 주최한 'The Dawn of AI & Web3'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융합 활용 사례를 발표함. 이 행사는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업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행사로, 오 대표의 발표는 큰 주목을 받음 - 오 대표는 '크레딧코인(CTC)'을 기반으로 한 대출·신용 결제 분야의 성과와 나이지리아에서의 금융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함. 특히, 크레딧코인 기반 신용 기록 플랫폼 '크레달(Credal)' 개발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의 CBDC 확장 협력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줌 - 또한, 탈중앙화 위성 통신 프로젝트 '스페이스코인'을 통해 인터넷 요금을 후불로 결제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신용 거래 기록을 축적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설명함.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자산,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Web3 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음
	<p>□ IQ AI, 니어 프로토콜과 기술 협력으로 체인 간 AI 에이전트 거래 상용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에이전트 토큰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IQ AI가 니어 프로토콜(Near Protocol)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에이전트 개발 키트(ADK)'에 '니어 인텐트(NEAR Intents)'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다고 발표함. 이번 기술 통합으로 IQ AI의 토큰화된 AI 에이전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들은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니어 프로토콜과의 직접적인 거래, 스테이킹, 디파이 참여 등이 가능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력은 기술 통합뿐만 아니라 재무적 협력도 포함하고 있음. IQ AI의 거버넌스인 '브레인다오'는 니어 프로토콜의 토큰 'NEAR'를 매수하여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니어프로토콜 재단은 'IQ'와 'FRAX' 토큰을 매수하여 토큰화된 AI 경제에 참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함 - 일리야 폴로수킨 니어 프로토콜 공동창업자는 이번 협력이 가상자산과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함. IQ AI의 공동창업자 역시 이번 통합을 통해 지능형 분산 에이전트 경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히며, AI 에이전트가 체인과 환경을 넘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함
	<p>□ 에스오에스랩 대표, "라이다는 피지컬AI의 결정체, 로봇의 눈 역할 할 것"(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의 라이다 상장사인 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가 라이다 기술이 '피지컬 AI'의 핵심이며, 미래 로봇 산업에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정 대표는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량화에 성공하여, 자율주행차를 넘어 산업용 및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힘 - 과거 자동차에 쓰기에도 크고 비쌌던 라이다 제품은 이제 헤드램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으며, 여러 개를 장착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됨.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로봇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의 공급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정 대표는 최근 조달한 430억 원의 신규 자금을 로봇용 라이다 라인업 확장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그는 3차원 물리 공간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AI의 첫 번째 비전 센서가 바로 라이다라고 강조하며, 에스오에스랩이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임을 자신함. 자율주행 시장 역시 개화 시점이 다소 늦춰졌을 뿐, 결국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p>□ 엑스페릭스 그룹, AI 헬스케어와 K-뷰티 투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확장 가속화 (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페릭스 그룹이 'K-이노베이션 수출 플랫폼' 비전 실현을 위해 AI 헬스케어와 K-뷰티를 양대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룹은 계열사별로 사업목적을 연이어 확대하며 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조직적 기반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강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솔루션 전문기업 엑스퍼릭스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술, 의료 AI 솔루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함. 이를 통해 AI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 자회사 엑스플러스는 화장품, 건강식품 수출입 및 국제물류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글로벌 소비재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K-뷰티를 비롯한 K-컬처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이커머스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윤상철 대표는 두 성장 엔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함 <p>□ LG전자, 美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릴리프AI' 공식 출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전자가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릴리프 AI'를 공식 출범시키며 미래 먹거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 북미이노베이션센터(NOVA) 내 프로젝트였던 릴리프 AI는 이번에 독립법인으로 분사(스핀아웃)하여 스타트업으로 새롭게 출발함. 이는 LG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임 - 릴리프 AI는 고급 진단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플랫폼을 개발함. AI 챗 저널리링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기분과 생각을 기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치료사의 활동을 추천하는 등 개인 맞춤형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LG NOVA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이 기술을 처음 공개한 바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최근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LG전자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LG NOVA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연간 1~2곳의 유망 기업을 분사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임
<p>대학교</p>	<p>□ 충남도-지역대학,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으로 다회용기 사용 확산(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가 지역 내 7개 대학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나섬. 정부의 2050년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대학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임. 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주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등이 참여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캠퍼스에 보증금 1000원을 기반으로 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충남도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각 대학은 자체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ESG 경영에 노력할 것임. 이를 통해 7개 대학에서 연간 약 70만 개의 일회용컵을 줄이고 30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함 - 협약식에서는 각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 35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함. 이들은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탈플라스틱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충남도는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다른 지역과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p>□ SKT, AI 기술로 독립운동가 모습 복원(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복원하고, 이들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함. '광복 80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 AI 독립'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여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달함 - 다큐멘터리에는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등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복원되어 등장함. 이번 복원 작업에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슈퍼노바(SUPERNOVA)'와 음원 분리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어, 흑백 사진과 낡은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영웅들의 모습을 오늘날에 되살려내는 데 성공함 - 이 프로젝트는 AI 기술이 단순히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됨. SK텔레콤은 기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국제신문, '기후 동행이 경제다' 주제로 에너지대전환포럼 개최(2025.0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문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9회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은 '기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동행이 경제다'라는 주제 아래, 오는 27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여름 폭염을 통해 기후 위기가 현실임을 체감한 만큼,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자리가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은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부산광역시 등 다수 기관이 후원함.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독자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문의 사항은 국제신문 미래전략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곧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임
	<p>□ 현행 탄소중립 기술, 인권·환경 문제로 전략 수정 필요성 제기(2025.08.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추진되는 탄소중립 기술들이 희토류와 같은 고갈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특히 풍력 발전기와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희토류 1톤 생산 시 방사성 폐기물 1톤이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대표적임 -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 지역은 채굴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 이러한 오염 물질은 황사와 함께 주변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먼지에서도 우라늄과 토륨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우려됨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의 희토류 중심 탄소중립 기술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며, 인류와 생태계의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옴. 따라서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는 당장의 이익보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전략을 수정하고 기술 개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 태권도진흥재단, '인공지능(AI) 사업 추진단' 발족으로 태권도 세계화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사업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신성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버추얼 태권도 시스템 고도화, AR/VR 체험 콘텐츠 강화, AI 해설 및 통역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버추얼 태권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27년 e-스포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지원하고, 태권도원의 AR/VR 체험관 '체험관 압'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예정임. 또한, AI 기반의 선수 훈련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임 - 재단은 카이스트와의 업무협약, 버추얼 태권도 운영자 자격 과정 개최 등 AI 기술 접목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음. 김종현 이사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상 스포츠 확대 정책에 발맞추고, '피지컬 AI'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도 적극 협력하여 태권도가 국제 체육계에서 타 종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힘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HDC현대산업개발, 송파한양2차에 AI·DX 기술로 스마트 랜드마크 조성(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업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AI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모바일 기반의 현장 품질관리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 AI 승강기 운영 기술 등 최첨단 솔루션을 통합하여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HDC현산은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I-QMS'를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사와 공유함. 이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통해 시공 과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 관리 플랫폼 'I-SAFETY 2.0'과 연동하여 통합적인 현장 관리를 구현함으로써 하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효과를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AI 객체 분석 기반의 승강기 시스템을 도입함. 이 기술은 화재, 낙상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목적층 사전 선택 기능을 통해 운행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HDC현산은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한 고급화를 넘어 장기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p>□ 춘천 소재 기업 디큐, AI 제품으로 GS인증 1등급 획득(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위치한 IT 기업 디큐(대표 김현갑)의 인공지능(AI) 제품이 강원도 내 기업 최초로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룸. GS인증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국가 표준에 따라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등 다각도로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이번 인증은 디큐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임 - 이번 GS인증 1등급 획득을 통해 디큐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공공시장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 - 디큐의 이번 성과는 지역 IT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강원도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김현갑 대표는 강원미래지도자 최고 전문과정인 '굿리더 아카데미' 춘천권 12기 회장을 맡고 있어,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짐
	<p>□ 강태영 농협은행장, '에이전틱 AI banking' 전략으로 기업금융 혁신 추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강조하는 '에이전틱 AI banking' 전략의 일환으로, 농협은행이 기업금융 분야에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임. 이는 디지털 기업금융 프로젝트 '더퀵커'의 일부로, 비대면 기업금융 플랫폼에서 지능형 질의응답 기반의 디지털 banking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롭게 도입될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질문을 자연어로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를 직접 탐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초기에는 기업뱅킹 조회 업무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에는 이체나 기업 특화 서비스 등 더 복잡한 업무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LG CNS와 함께 개발한 금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태영 행장은 평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에이전틱 AI banking“이라며 AI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해 옴.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인간이 제시한 목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고객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협은행은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와의 협업도 지속하며 AI 기반 기업 디지털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p>□ 가온아이, 클라우드 전문가 김주성 CSO 선임으로 클라우드·AI 사업 강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아이가 kt cloud 상무 출신의 김주성 전무를 선임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선임하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에 나섬. 김주성 선임 CSO는 14년 이상 클라우드·AI 분야를 주도해 온 전문가로, 그의 영입은 가온아이의 사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김 CSO는 kt cloud 재직 시절 'G-클라우드' 기획, 금융 전용 클라우드 등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산학연 협의체 '클라우드 원팀'을 주도하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임. 이러한 경험은 가온아이의 공공 및 민간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가온아이는 최근 'AI for Cloud, Cloud for AI'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AI 비즈앱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AI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조창제 대표는 이번 인사가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워크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부 전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함
	<p>□ 어니스트AI, KT와 손잡고 금융 특화 AI로 엔터프라이즈 AX 시장 공략(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AI 전환(AX) 전문기업 어니스트AI가 KT와 '금융 분야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엔터프라이즈 AX 시장 공동 개척에 나섬. 이번 협약은 어니스트AI의 금융 특화 AI 솔루션과 KT의 AI·클라우드 인프라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KT의 AI·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어니스트AI의 산업 특화 AI 엔진을 탑재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투-엔드 AI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임. 이는 범용 AI 플랫폼이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평가, 사기거래탐지(FDS), 법률 분석 등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별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어니스트AI는 이미 제주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으며, 이번 KT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결합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장이라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됨. 서상훈 대표는 KT와 함께 AI 향세의 필수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양사의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것을 자신함
	<p>□ 퓨리오사AI, 베트남 CMC 코리아와 전략적 MOU 체결로 글로벌 시장 공략(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베트남의 대표 IT 서비스 기업 CMC 글로벌의 한국 법인인 CMC 코리아와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번 협약은 퓨리오사AI의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력과 CMC 코리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역량을 결합하여, 글로벌 AI 솔루션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임 -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한국과 베트남의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AI 반도체 아키텍처 기술과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계획임. 또한,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교차 마케팅과 잠재 고객 발굴을 병행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IT 운영 서비스, AI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함 -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동남아 ICT 강자인 CMC와의 협업을 통해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냄. 당 응옥 바오 CMC 글로벌 대표 역시 양사의 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함
	<p>□ 네이버, "눈과 귀를 가진 '모두의 AI'로 소버린 AI 실현할 것"(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기술총괄이 국민 누구나 일상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인공지능(AI)'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이를 위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성하는 '옴니모달리티(Omnimodality)' AI 모델을 개발하여, 피지컬 AI 구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총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 주권, 즉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타국의 AI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 있으며, 한국의 산업 상황에 맞는 AI를 개발해야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네이버는 데이터센터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AI 모델을 개발할 것임을 자신함 -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 일본 등에서의 소버린 AI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모델 판매를 넘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묶은 'AI 생태계 패키지'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또한, 국내 AI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량 모델의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직접 AI 개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p>□ 클라우드웍스, 234억 원 유상증자 성공...AI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 추진 (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테크 기업 클라우드웍스가 총 23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함. 구주주 대상 청약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모두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반공모에서는 128.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함.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임 - 클라우드웍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솔루션 고도화, 신규 사업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회사는 에이전틱 AI 솔루션 '알피(Alpy)'와 데이터 구축 솔루션 '워크스테이지(Workstage)'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사업을 수주하며 성과를 내고 있음 -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AI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클라우드웍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의 성공이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확보된 자금을 통해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AI 혁명 시대, 컴퓨터 전공자들의 취업난 심화(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미래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던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이 인공지능(AI) 혁명의 여파로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함. 한때 '코딩만 배우면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명문대 우수 졸업생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미국 컴퓨터 전공자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도함 - 2010년대 초부터 시작된 코딩 교육 열풍으로 컴퓨터 분야 졸업생은 급증했으나,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 특히 최신 AI가 간단한 코딩 작업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은 신입 개발자 채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컴퓨터 전공 대졸자의 실업률이 다른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남 - 설상가상으로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경력직 개발자들이 고용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신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맥도날드에 지원했다가 '경험 부족'으로 탈락한 사례까지 등장하며, AI 시대에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구조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함
	<p>□ 강원일보, AI 기술로 일제감시카드 속 독립운동가 미소 복원(2025.08.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원일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일제감시카드 속에 굳은 표정으로 남아있던 강원 출신 독립운동가 80명의 얼굴에 미소를 복원하는 특별기획을 선보임.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아래 웃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들에게 80년 만에 빼앗겼던 미소를 되돌려주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임 -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이 꿈꿨던 해방된 조국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후손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복원된 미소는 단순한 이미지 변환을 넘어, 80년을 건너온 광복의 완성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늦은 편지와도 같음 - 강원일보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강원 출신 독립유공자 중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등재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번 복원 작업을 진행함. AI라는 21세기의 기술이 과거의 아픔을 위로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달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p>	<p>□ AI 시대, 대학 학위의 권위 하락과 실리콘밸리의 '중퇴자 신화'(2025.08.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으로 전통적인 지식 전달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대학 학위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명문대 졸업장조차 더 이상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며, 오히려 대학 중퇴가 혁신적인 창업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새로운 풍조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AI가 웹상의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기존 '지식 전수자'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설립한 '틸 펠로십'은 대학 중퇴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배출하며, 틸 펠로십 출신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보증 수표'로 통함. 틸은 “대학은 거품“이라며, 비싼 학비와 학자금 대출이 젊은이들의 혁신적인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함 - AI 시대에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네트워킹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가 교육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등 학위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기술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p>	<p>□ 미·중 AI 칩 전쟁 격화, 엔비디아의 딜레마(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AI) 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곤경에 처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칩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국산 칩 사용 자제를 촉구하며 맞대응함. 이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중국 당국은 특히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모델인 H20 칩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함. 이는 H20 칩에 위치 추적이나 원격 종료 기능과 같은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중국 정부는 과거 애플 아이폰 사용을 제한했던 것과 유사하게,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함 -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능을 낮춘 칩을 개발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던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가 위축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수록 엔비디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오픈AI, 빅테크 인재 쟁탈전 속 거액 보너스로 핵심 인력 유출 방지(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간의 치열한 인공지능(AI) 인재 쟁탈전 속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거액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보너스는 최신 AI 모델 'GPT-5'의 공식 출시에 앞서 지급되었으며, 대상은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인력 1,000여 명에 달함 - 보너스 금액은 직무와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GPT-5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원들은 최고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메시지를 통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보상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움 - 이러한 대규모 보너스 지급은 최근 메타 등 경쟁사들이 오픈AI 출신 연구원을 영입하는 등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선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됨.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됨에 따라, 빅테크들 사이의 '편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p>□ 일론 머스크-오픈AI 소송전, 내년 3월 본재판 예정(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AI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의 본재판이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오픈AI의 맞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머스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진행을 결정함. 이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방향성을 둘러싼 두 거물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이 초기 설립 이념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오픈AI가 “머스크가 회사의 성장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됨. 오픈AI는 머스크가 언론과 SNS를 통해 회사를 공격하고, 가짜 인수 시도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던 머스크는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한 바 있음. 이후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 옴.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주목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텐센트, AI 기반 광고 사업 호조로 2분기 시장 전망 상회 실적 달성(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함.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560억 위안(약 10조 7,600억 원), 매출은 15% 상승한 1,845억 위안(약 35조 4,570억 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과시함 - 특히 마케팅 서비스 부문 매출이 20%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는데, 이는 AI 기반 광고 플랫폼의 고도화가 주효했기 때문임. 텐센트는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관심도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광고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함. 또한, 핀테크 및 비즈니스 서비스 매출 역시 기업 고객의 AI 서비스 수요 증가로 10%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텐센트는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AI 분야에 대한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회사는 AI에 대한 투자가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함
기타	<p>□ 'AI 대부' 제프리 힌턴, "AI에 모성 본능 심어야 인류 멸망 막아"(2025.08.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10~20%에 달한다고 거듭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독특한 해법으로 AI에 '모성 본능'을 심는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함. 그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인간을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 힌턴 교수는 더 지능적인 존재(AI)가 덜 지능적인 존재(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유일한 모델은 '아기에게 통제당하는 엄마'라고 설명함. 모성 본능을 가진 AI는 인간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결말일 수 있다고 주장함. 기술적 구현 방법은 불명확하지만, 연구자들이 이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반면, 'AI의 대모' 페이페이 리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인간 중심의 AI'를 강조하며 힌턴의 주장에 반박했고, 오픈AI 임시 CEO를 지낸 에밋 시어는 인간의 가치관을 주입하기보다 인간과 AI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등 AI의 미래를 둘러싼 석학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